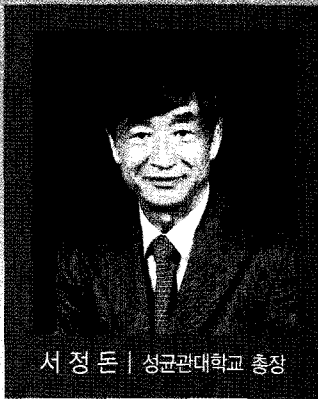


# 미래 대학을 여는 5가지 키워드



서 정 돈 | 성균관대학교 총장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의학석사학위와 의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대학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대한민국립정치대학에서 명예경영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서울대 의대 교수를 재임하다 1997년부터 성균관대 교수로 재직 중이며, 의과대 학장, 의학연구소 소장을 역임하다 2003년부터 성균관대학교 총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삼성의료재단 이사, 과학기술진흥원 정회원, 성뇌졸관질환 관리위원회 위원장, 아태심장학회 사무총장, 한국의료QA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허스트 박사의 의학교육론, 하워드 배로우스 박사의 튜터식 교수법 등이 있다.

2010년 새아침이 밝았다. 신년 벽두부터 대학 사회의 변화가 눈부시다. 대학교육의 21세기적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분주하다. 각 대학마다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발전계획으로 'VISION 2020'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다.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장한 모습과 경쟁에 뒤처지지 않으려는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지혜로 읽을 수 있다. 좋은 일이다. 바람직한 모습이다. 각 대학이 선의의 경쟁구도를 형성하면서 서로 잘하려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니 반가울 따름이다. 우리 대학도 '비전 2010+'를 마무리하고 뉴 성대를 만들기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이 한창이다. 변화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안개처럼 다가오지만 열매는 항상 준비하는 자의 몫이다. 앞으로 다가올 세계에 대한 준비는 아무리 빨라도 오히려 늦은 것이다.

새로운 대학에 대한 구상을 펼침에 있어 사회의 변화와 미래의 트렌드를 간과할 수 없다. 더구나 대학의 근본을 망각할 수 없으며 민족적·국가적 책무도 도외시할 수 없다. 피터 드러커는 미래에는 지금과 같은 대학의 모습은 사라질 것이며 유적으로 남을 것임을 과감히 전망하고 있다. 미래의 대학 그리고 대학의 진화를 조망하는 5가지 키워드를 나름대로 정리해본다.

무엇보다도 으뜸으로 제기되는 미래 대학의 키워드는 창조성(Creativity)이다. 창조하는 대학이 살아남는다. 21세기적 삶은 무수한 다양성이 꽃 피는 시대다. '다름'을 당연하게 여기고 획일(劃一)을 거부하는 '제 밭'에 사는 문화가 일반화되고 있다. 복잡계 과학이 대세로 대두되고 있으며 날마다 새로운 변종이 출현하고 있다. 다양성과 복잡성의 바탕은 새로운 지식에 근거한다. 지식의 존재 이유는 삶에의 니즈(Needs)다. 삶 자체가 점점 복잡하고 어려워지는 다양성 사회는 필연적으로 창조를 요구한다.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이 더욱 절실하다. 미래의 대학은 다양성을 무한대로 확장하는 풍토 속에서 존재하며, 복잡한 변종이 수시로 출몰하는 예측불허의 사회에서 창조의 방향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 미래의 대학은 창조하는 대학이어야 한다.

창조를 위한 미래의 대학은 열린 대학이다. 막힌 분과학문의 좁은 틀로는 병아리 한 마리조차 품을 수 없다. 닫힌 답답함은 스스로 열린 시원함을 지향한다. 학문 간의 벽을 허물고 칸막이를 제거해야 한다. 아날로그적인 분과학문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 학문 간의 합종연횡이 붓물처럼 일어나, 이른바 융복합(Convergence)이 주류를 형성하는 대학사회가 도래하고 있다. 미래의 대학은 폭넓고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는 대학이



다. 미리 준비하는 융복합 기반은 그 만큼 미래를 개척한다.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WCU)이 융복합 학문을 전제한 것은 일종의 혜안이다.

그리고 사이버대학의 진화를 놓칠 수 없다. 사이버 세계는 현실 세계보다 더욱 더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다. 단순히 강의 콘텐츠를 웹에 탑재하는 수준에서 시작한 사이버 강의는 질의 응답의 2차원을 넘어 3D 기반의 가상현실(Virtual Reality)을 실재화하고 있다. 미래 대학에서 적어도 교육부문은 사이버 세계에서 광범위하게 급속도로 이루어질 것이다. 지식의 전달과 전수는 자기주도학습을 전제로 한 평생학습의 구조로 전화하고 있다. e-BOOK과 전자도서관이 일상화됨은 물론이고 강의 실마저도 사이버 공간에서 구현되는 시대가 멀지 않았다. 미래의 대학은 사이버 3.0으로 진화하고 있다.

아울러 핵심(Core)의 가치가 더욱 빛날 것이 분명하다. 핵심 가치가 중요하며 핵심인재가 곧 가치이다. 상위 1%의 핵심인재가 시대와 학문을 리드하는 핵심지향사회(Core-Oriented Society)가 도래하고 있다. 탁월한 연구 성과의 파급력은 더욱 확대되며 연구역량을 갖춘 핵심인재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단순히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핵심 지식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과정 역시 핵심역량 기반으로 재편되고 있다. 대학마다 핵심인재를 확보하

기 위한 기상천외한 방안을 모색하고 핵심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혁신 전략을 끊임없이 수립하는 연유가 여기에 있다.

한편, 미래 대학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가치이자 필수 역량으로 부각되는 것은 소통(Communication)의 미학이다. 미래의 대학 역시 인간이 만들어가는 사회만큼 대학 본연의 기능과 역할이 소홀히 다루어질 수 없다. 사람이 사회를 이루어 삶을 영위하는 기본 전제는 소통이다. 통해야 산다. 나와 내가 통하고 남과 우리가 서로 통해야 한다.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통해야 하고 지역과 글로벌이 통해야 한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인 소통이 이제는 전문적으로 배워야 하는 커뮤니케이션 스킬로 변모하고 있다. 그만큼 우리가 문을 닫고 살고 있는 것이다. 미래에는 열어야 한다. 열어야 미래가 온다.

미래의 대학을 조망하는 키워드로 5C(Creativity, Convergence, Cyber 3.0, Core, Communication)를 제시해 보았다. 어찌 이 다섯 마디로 미래 대학을 규정하고 정리할 수 있겠는가. 부족하고 생략이 많다. 하지만 불확실한 미래를 개척하는 질실한 심정으로 고민하고 궁구(窮究)해야 할 시대적 화두로 삼는다. 이러한 변화를 주도적으로 선도해 나간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대학'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